

<신문지 꽃다발>

“무전(無錢)이 무성(無誠)”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누군가에게 성의를 보여야 할 때, 금전적인 정성 없이 말이나 마음만으로는 진심이 전달될 수 없다는 뜻이다.

직장 상사의 자녀 결혼 청첩장을 받아 쥐면 고민에 들어가는 것이 이와 같은 이유에서다. 형편이 쪼들려 축의금을 5만 원만 내고 싶고, 그와 나 사이의 관계를 볼 때 그 정도가 적당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감히 그럴 수는 없어 5만 원 짜리 지폐 2장을 봉투에 넣으면서도 심리적 압박을 받는다. 혹시 10만 원도 적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 “무전이 무성”이라는 희한한 격언(?)을 다시 떠올리곤 한다.

하지만 성의와 돈은 별로 상관없다. 진심과 돈은 더더욱 상관없다. 진심이 머물지 않는 곳이야말로 그 텅 빈 구멍을 메우느라 돈이 오가는 것이다. 나는 그걸 초등학교 2학년 때 배웠다.

초등학교 2학년 스승의 날이었다. 나는 어머니가 쥐어주시는 선물을 들고는 출렁출렁 학교를 갔다. 아이들도 모두 선물을 하나씩 들고 있었다. 스승의 날이니 잊지 말고 꼭 선생님께 드리라는 어머니 말씀을 들을 때는 오늘이 선생님 생일인 줄 알았다. 그래서 아이들도 제각기 선물을 들고 온 줄 알았다. 나도 생일 때는 연필깎이나 스케치북 같은 걸 선물로 받곤 하니까 선생님도 생일에는 당연히 받으셔야 했다. 이상한 건, 옆 반도, 옆옆 반도 모두 담임 선생님들이 생일을 맞이하셨는지 아이들이 크고 작은 선물을 들고 학교에 왔다는 점이었다.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오시자 반장은 차렷 경례를 했고, 우리는 그 의식이 끝나자마자 선생님께 생일선물(?)을 드렸다. 나는 생일 축하드린다는 말씀까지 드렸는데, 선생님이 하하 웃으셨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우리 반 아이들 모두가 선물을 가져올 수 있었던 건 아니었다. 내 짝 오중민(가명)이라는 아이는 빈손이었다. 그 아이는 우리처럼 아파트나 주택에 사는 게 아니라 저만치 떨어진 뒷산에 살고 있었다. 정확히는, 산 중턱에서 과수원을 하는 먼 친척네 집의 안 쓰는 비닐하우스 하나를 얻어 일가족이 살고 있었다. 오중민의 아버지는 건설업을 하셨는데, 형편이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았다.

우리가 교탁으로 우르르 몰려가 선생님께 선물을 드릴 때 선생님도 웃고 우리도 활짝 웃었다. 나는 당당하게 선생님께 선물을 드리고는 뒤돌아서 내 자리 쪽으로 향할 때 혼자 자리에 앉아 있는 오중민의 표정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모두가 왁자지껄 떠들며 교탁에 몰려 있을 때, 내 짝은 혼자 자리에 앉아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그때는 내가 너무 어려 짝의 심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서글픈 표정은 내내 잊히지가 않는다.

다음 날이었다. 오중민은 신문지로 돌돌 싼 꽃을 한 아름 들고 학교에 왔다. 웬 거냐고 물으니, 자기 어머니랑 같이 뒷산을 돌아다니며 예쁜 들꽃을 골라 꺾어온 것이라 했다. 오중민은 어제와는 다르게 헤헤 웃으며 밝아 보였다.

선생님이 오시자 오중민은 주뻔주뻔하며 신문지 꽃다발을 든 채 교탁 쪽으로 걸어갔다. 모두 웅성거렸다. 선생님은 그게 무슨 뜻인지 짐작하고는 꽃보다 더 아름다운 표정을 짓고 계셨다. 그러고는 양팔을 벌려 오중민을 안아주셨다. 아홉살 나이에 짝사랑이란 게 있고, 그 대상이 선생님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당시 나의 짝사랑은 선생님이었다. 그런데 아무도 안아주시지 않던 선생님은 오중민을 와락 안아주신 거였다. 게다가 어제처럼 아이들이 한꺼번에 몰려든 것도 아니고, 오중민 혼자서 교탁 앞에 서 있으니 마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주인공이 된 것처럼 보였다. 나는 그날 오중민이 정말 부러웠다. 그리고 선생님은 선물보다는 꽃을 더 좋아하시는구나 하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

그날 일이 너무 부러워서였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였을까. 그 일이 내내 기억났다. 그날 오중민이 드린 '무전(無錢)'의 신문지 꽃다발은 그 어떤 선물보다 선생님을 감동시킨 것 같았다. 무전이 곧 무성이 아니고, 금전적 가치보다는 진심과 정성이 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다.

대학교 3학년 2학기 때 휴학을 하고 학원 강사를 한 적이 있다. 어릴 때 짝사랑이었던 담임 선생님 흉내를 내며 아이들에게 인자하고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늘 그런 마음을 유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게다가 나도 학자금 대출 받아놓은, 미래에 꼭 갚아야 할 빚에 대한 부담감과 취업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늘 평정심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았다. 아이들에게 더러 짜증도 냈고, 말 안 듣고 떠드는 아이에게는 벌을 세우기도 했다.

그때 말았던 아이들 중에 유독 말 안 듣는 아이가 있었다. 잠시도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교실 여기저기를 배회하며 친구들의 공부를 방해했는데, 나는 그 꼴을 볼 때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미는 걸 간신히 참곤 했다. 내가 원장이었으면 당장 학원을 못 나오게 했을 테지만, 월급 받는 입장이라 이래라 저래라 할 처지는 못 됐다. 한 번은 그 아이가 수업 중에 콜라 캔을 마구 흔들더니 친구들에게 뿌려대는 것이었다. 그때만큼은 참을 수가 없어 소리를 버럭 질렀다.

“너 뒤에 가서 수업 끝날 때까지 양팔 들고 서 있어!”

내 기세에 놀린 녀석이 풀이 죽어 벌을 받자 고소하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다음 날이었다. 녀석의 어머니가 나를 찾아왔다. 마침 그때 나는 수업이 없어 자리에 앉아 있었고, 다른 강사들은 수업에 들어간 상태였다. 아이 어머니를 보자 덜컥 겁이 났다. 어제 벌 준 것 때문에 따지러 온 줄 알았기 때문이다. 원장에게 거칠게 항의라도 하면, 그리고 다른 학부모들한테 소문이라도 내면 나는 당장 일자리를 잃게 된다. 기껏해야 대학교 3학년에 불과한 아르바이트 강사가 될 믿고 아이를 벌 세웠단 말인가! 정말 후회됐다. 그런 생각이 들자 사람이 비굴해지는 건 한순간이었다. 아주 공손히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배꼽 앞으로 모으고는 “OO 어머니, 안녕하세요?”라고 각듯이 인사했다. 아이 어머니는 되레 내게 90도에 가까운 인사를 하며 극도로 공손한 태도를 취했다. 나보다 스무 살은 많은 아주머니가 그렇게 나오자 나는 깜짝 놀라 더 깊숙이 허리를 굽혔다.

“우리 아이가 좀 많이 속을 썩이죠?”

나는 아니라고, 공부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마음에도 없이 헤헤 비굴하게 웃으며 손사래를 쳤다. 제발 원장님한테 엉뚱한 말씀드리지 말라는 뜻으로.

아이 어머니는 조금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다. 아이가 어릴 때부터 ADHD를 앓고 있어서 통제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었다. 그때서야 나는 녀석의 행동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다니는 학원마다 쫓겨나기 일쑤예요. 이젠 이 인근에서 여기 말고 다닐 학원도 없어요. 제발 선생님, 우리 아이를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아이 어머니는 눈물까지 글썽였다. 왜 안 그렇겠는가. 나는 아이를 낳아 키워보지 않았지만, 그 심경이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았다.

“저기, 그리고 이거…….”

아이 어머니는 편지 봉투를 내밀고는 서둘러 인사를 하고 떠나셨다. 나는 못

다한 이야기를 편지로 쓰셨나 보다, 아이 어머니가 정성이 대단하니 내가 더 인내심을 발휘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봉투 속에 든 건 편지가 아니었다. 편지와는 다른 형식의 정성이었다. 현금 20만 원. 당시 아이 한 달 학원비와 맞먹는 액수였다. 나는 액수를 확인한 순간 복잡한 기분이 들었다. 이걸 받아도 되나 싶어 죄책감이 일기도 하고, 그 아이 때문에 내가 더 고생하니 그만큼 더 받는 건 당연한 일이라는 자기합리화도 하며, 나도 경제적으로 코가 석자인데 잘됐다는 생각도 들었다.

무엇보다 영화에서나 보던 이른바 '돈봉투'를 받는 사람이 된 것 같아 우쭐한 기분도 들었다. 그건 정말 부끄럽고 구질구질한 우월감이었다. 우쭐해진 기분을 느낀 그 몇 초가 아직 잊히지 않는다. 내 마음에도 그런 옳지 못한, 어둡고 추잡한 구석이 있다는 게 두고두고 부끄러운 기분이 들게 한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내가 그 봉투를 받는다는 것은 자식을 걱정하는 애끓는 부모 심정을 악용하는 걸 의미했다. 무엇보다, 성자처럼은 못 살아도 악당으로는 살지 말자는 내 인생의 신념이 고작 20만 원 앞에서 흔들리는 게 어처구니가 없었다. 나는 내 인생과 양심이 20만 원짜리가 되는 걸 거부하기를 택했고, 2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 아니 그보다 더 큰 액수라 해도 받지 않을 것이라 다짐했다.

그런 다짐을 할 때 내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 내 짝 오중민과 담임선생님이었다. 들꽃을 신문지에 싸서 내민 가난한 집 자식 오중민. 그러나 선생님은 그 마음에 감동했고,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체온으로 오중민을 안아주셨다. 어떤 까닭인지 돈을 돌려주기로 결심할 때 어린 시절의 그 장면이 떠올랐다.

그 20만 원은 대가성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 뉴스에서 보던 부정부패의 양상과는 분명 다른 성질의 돈이었고, 그 돈을 받는 게 오히려 아이 어머니의 마음을 안심시키는 길일 수도 있었다. 그리 호들갑 떨 만큼 큰돈도 아니었고, 내게는 한 푼의 돈이 아쉬운 때였다.

그러나 돈의 액수와 성질이 문제가 아니었다. 그 돈을 손에 쥐었을 때의 내 마음이 문제였다. 이익을 앞에 두고 나는 정직을 생각하지 않았다. 돈 봉투를 앞에 놓고 내 마음에 떠오른 것은 정직이나 청렴, 정당함 등의 올바른 가치가 아

니었다. 내 마음에는 즉각적으로 욕심이 고개를 내밀었다. 바로 그 점이 나는 두고두고 부끄럽다. 돈은 돌려줬지만, 그 마음을 몇 초라도 유지시켰다는 점이 지금도 부끄럽다.

내가 만약 그 봉투를 받았더라면 마치 음식이 상하듯 순식간에 부패해버린 내 마음이 영영 회복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좋은 게 좋은 것', '무전이 무성 아닌가.' 하는 식으로 그렇게 얼렁뚱땅 살았을지도 모른다.

한 번 상한 음식은 다시 싱싱해질 수 없듯, 한 번 부패해진 마음은 다시 맑아지기 힘든 일이다. 어찌면 초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모두가 보란 듯이 오중민을 안아주신 것은 들꽃이 예뻐기 때문이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돈을 들인 선물보다는 진심이, 돈으로 해결하려는 마음보다는 정직이 훨씬 중요한 가치임을 가르치신 게 아닌가 한다. 그 부러웠던 장면은 두고두고 내 뇌리에 박혀, 내가 부끄러운 갈등을 할 때마다 나를 따끔하게 가르친다.